

여수시 아파트 분양권 등 40명 편법 증여

시, 분양권 전매 6차례 조사

의심 거래자 127명 기관 통보

여수시가 아파트 등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40명이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해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56건 1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분양권 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각각 달라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16명은 경찰서에 통보했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

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사항을 중점 조사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6차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의심 거래자 총 12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청년농업인 임차료 연 200만원까지 지원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곡성군, 올 달라지는 제도 발간

곡성군이 농업·청년·복지·교육 등 올해 달라지는 7개 분야 103개 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작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간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49세 이하 청년농업인 30명을 모집해 임차료의 70%를 연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21세부터 만 28세 청년에게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연 20만원을 곡성뿐 아니라 전라남도 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는 오는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한 만 19세부터 만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급방식이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사업 완료 후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농협으로부터 선(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시책도 풍부해졌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생아부터 만 1세 영아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인구 유입 장려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곡성군으로 전입할 경우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반기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는 꿈키움마루를 중심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진학상담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진로 아카이브 시스템(Dream!ing)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진로 탐색 과정을 제공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여순사건 진상규명 바로 알린다

순천시·범국민연대

해설사 36명 수료식

사건 배경·특별법 제정 홍보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사건의 배경과 진행, 특별법 제정의 역사를 알리는 민·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순천시는 여순10·19 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와 함께 2018년부터 여순항쟁 교육강사와 해설사를 양성해 왔고, 최근 해설사 전문과정과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에서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지난 3개월간 12주 과정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답사 해설 교육을 했으며 12일 여순항쟁 해설사와 예비연구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했다.

순천 및 여수, 광양, 구례, 벌교 지역에서 참가한 41명의 교육생 중 모든 과정을 이수한 36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교육은 '남도학' '여순항쟁사' '피해실태조사



전문과정과 예비연구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여수·순천 10·19사건 해설사들이 수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10·19 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제공>

및 증언채록기법' '여순항쟁 강의 및 해설기법' '사진으로 알아보는 여순항쟁' '여순항쟁 왜곡 바로 알기' '보성·고흥지역과 여순항쟁' '여순항쟁 역사화' '제주 4·3 역사 유적지와 여수, 순천지역 유적지 답사' 등으로 이뤄졌다.

박소정 범국민연대 대표는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전문 연구자 및 해설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

한 교육이었으나 교육 기간 내내 강사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의 열공에 보람이 컸다"면서 "교육을 이수한 해설사와 예비연구자들은 특별법 시행 이후 나아가야 할 진상규명 운동, 찾아가는 교육, 현장 해설 등 여순사건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돼 기뻐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착수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등 6종

40억 들여 하반기 본격 서비스

광양시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지난 12월까지 스마트 서비스 6종 시공(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은 규모의 지역에 최적화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도입하는

국토부의 전략사업이다.

시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스마트 서비스 3종(스마트 쓰레기통, 폐지 수거시스템,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고도화), 대기오염 최소화 실현 서비스 2종(공유 모빌리티, 스마트 클린시티), 시스템 간 통합·연계용 예코 플랫폼 1종 등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호동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해 수집된 캔, 페트병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판매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은 상반기 스마트 서비스 6종 구축과 상호 연계,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주옥 광양시 정보통신과장은 "본 사업이 광양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등의 단계적 해결과 저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한 광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대상 사업 활성화 논의

고흥군·전남테크노파크

고흥군과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안내, 입주실 배정, 계약 체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고흥드론센터 입주 기업은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를 통해 8개소(기관 기업)가 최종 선정됐으며 고흥군은 12개 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2021년 8월 준공한 고흥드론센터는 기업 입주 공간 25실, 기숙사 14실, 창업 지원 공간 4실, 드론 체험장 등으로 구성됐다. 고흥드론센터 주변으로 입주 기업들이 마음 편히 드론기체를 비행 실험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공역(22km)도 있다.

고흥군은 초기 입주 기업의 정착을 위해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준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합중앙회 기업 지원 사업을 연계, 입주 기업의 R&D 공동 기획, 지적재산권, 마케팅, 경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 12개 읍면 2305명에 노인일자리 지원

교통봉사 등 46개 사업단 운영

보성군이 17일부터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일제히 개시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는 총 2305명으로 12개 읍·면을 5개의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한다.

수행기관은 군정 주요 시책사업인 보성600 사업과 연계한 내 동네 가꾸기 사업과 보육시설 지원사업, 스톨존 교통지원봉사 등 46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사업단은 수행기관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비대면 워크북(동영상) 교

육을 실시한 후 활동을 시작한다.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종사자 및 참여자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며 "수행기관과 어르신들께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작업 중 모자와 작업복을 착용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